

베트남, 최근 경제 불안의 원인과 전망

1. 주요 경제지표의 불안 확대

□ 물가 급등 및 주가 폭락 등 경제 불안정성 증대

- 2008년 4월중 베트남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월대비 21.4%나 상승하고, 5월 19일에는 주가지수(VNindex)가 455.67p를 기록하여 2007년 5월의 최고점인 1113.19포인트에 비하여 59%나 하락하였으며, 2008년 1/4분기중 상품수지적자가 111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주요 경제지표의 불안으로 베트남 경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.
- 이에 따라 베트남 최근 경제 불안의 원인을 주요 경제 지표별로 살펴보고 베트남 정부의 정책 방향을 통해 향후 베트남 경제를 전망해 보고자 함.

2. 최근 경제불안의 원인

가. 물가

□ 식료품 가격 상승 및 신용 팽창으로 인한 인플레이 우려

- 지난 4월 베트남 소비자물가지수가 21.4%를 기록하여 199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음. 이러한 상승세는 베트남 소비자물가지수 구성의 34.2%를 차지하는 식료품의 가격이 34.2%나 상승하였고, 주택 및 건축가격도 23.0% 상승하였기 때문임.

-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물가상승 원인은 현재 베트남 Dong화의 환율이 미 달러화에 실질적으로 연동(peg)되어 있어 달러 표시 수입물가 상승의 효과가 거의 그대로 베트남 물가지수에 전가되기 때문임.
- 또한 베트남의 WTO 가입 발효, 미국으로부터의 항구적정상무역관계(PNTR) 지위 획득, 투자관련 법제의 개혁 등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2007년중 외국인직접투자 승인액이 사상 최고치인 179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투자자금 유입으로 인해 유동성이 확대되었음.

나. 상품수지

□ 수출증대에도 불구하고 수입확대로 상품수지 적자 급증

- 베트남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의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, 베트남이 수출 대상국을 중국, 호주 등으로 다변화하면서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.
- 그러나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석유제품의 수입액 증대, 외국인투자 확대에 의한 자본재 수입 증대, 고도 경제성장 지속으로 인한 자동차 등 고급 소비재 수요 증가, WTO가입 및 AFTA 추진으로 인한 관세율 인하 등으로 수입 수요가 크게 증대되었음.

<표> 베트남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04	2005	2006	2007e	2008f
경 상 수 지	-957	217	322	-3,081	-6,497
경상수지/GDP	-2.1	0.4	0.5	-4.4	-7.5
상 품 수 지	-2,287	-839	-280	-12,443	-8,135
수 출	26,485	32,442	39,904	48,387	60,720
수 입	28,772	33,281	40,184	60,830	68,855
외 환 보 유 액	7,186	9,217	13,591	19,741	23,182
총 외 채 잔 액	18,049	19,211	20,202	21,693	24,426
총외채잔액/GDP	39.8	36.3	33.2	30.9	28.3
D. S. R.	2.3	2.3	1.8	1.6	1.4

자료 : IFS, EIU

- 특히 2008년 1/4분기중의 상품수지 적자 규모가 111억 달러에 달해 2007년도 상품수지 적자규모인 124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음.

다. 국내신용

□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증대

- 최근 3~4년 동안의 베트남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기업 및 개인이 은행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확대하면서 국내신용(domestic credit)이 크게 팽창하게 되어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. 베트남 국내신용은 2007년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50%까지 상승하였음.

라. 주가(VNindex)

□ 최고점 대비 59% 하락

- 베트남 주가지수(VNindex)는 지난 5월 19일 종가기준 455.67포인트를 기록하여 불과 1년 전의 최고점 1113.19포인트 대비 59%나 하락하여 베트남 경제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음.
- 특히 베트남 증시에 투자한 외국계 펀드뿐만 아니라 베트남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확대되어 베트남내 사회문제로도 비화되고 있음.

<그림>

베트남 주가지수 추이



3. 베트남 정부의 대응

□ 인플레이 억제를 위한 고금리 정책 단행

- 베트남 중앙은행(SBV)은 인플레이 억제를 위해 지난 5월 17일 기준금리를 기존 8.75%에서 3.25%p나 인상한 12%로 정하여 물가 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, 추가적인 인상도 가능한 것으로 보임.
- 이에 따라 베트남 시중은행들의 최대 예금 및 대출 금리도 급상승하였는데 최대예금금리는 14.8%까지, 최대대출금리는 18%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되었음.
- 또한 SBV는 국내 통화량 환수를 위해 금융기관들에 대해 20.3조 동(약 13억 달러)에 이르는 금융증서(Treasury Bill)를 발행하였음.

□ 국내 외화 대출 규제

- 그동안의 환율 안정으로 베트남내 달러 대출금리(9~10%)가 베트남 동화 대출금리(18~20%) 보다 낮아 달러 대출 수요가 베트남 국영상업은행 및 국영기업을 주축으로 크게 증대되어 왔음.
- 베트남 중앙은행(SBV)은 달러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4월 14일 중앙은행고시(No. 09/2008/QD-NHNN)를 통해 아래의 3가지 경우에만 달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실상 달러 대출을 규제하고 있음.
 - ① 베트남내 사업 및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한 재화 및 용역의 수입, ② 적법한 외화대출의 상환, ③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은 해외투자 등

□ 국영부문의 지출 축소

- 베트남 정부는 최근의 경기 과열 및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 중의

하나로 2007년중 국영기업의 과도한 지출 확대를 지적하고 이의 억제를 추진하고 있음.

- 한편에서는 베트남 부동산 투자 붐이 베트남내 국영기업이 국영상업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여 대규모 부동산 사업에 집중 투자한 것에 기인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, 국영부문의 투자 지출 억제는 물가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.

4. 전망

□ 현재의 경제 불안은 경기 조정 과정

- 베트남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7%가 넘는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으며, 특히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대 들어 신규 유망 투자지역으로 부상하면서 대규모 외국인투자가 유입되었음.
- 특히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국영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확대되면서 국내 내수 경기가 상승하고 주가지수가 2006년 8월 이후 6개월만에 2.5배나 급등하는 등 경기 과열 양상을 보여 왔음.
- 이에 따라 최근의 베트남 경제 불안은 그동안의 경기과열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정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.

□ 물가 안정 및 상품수지 적자폭 축소 전망

- 그동안의 물가 상승은 과도한 유동성 증가, 고정 환율(peg)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, 국제 유가 상승 등이 주요 요인으로 보이며, 베트남 정부의 금융정책이 그 효과를 나타내는 하반기부터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.
- 2008년도 1/4분기중의 상품수지 적자는 수출 증대에도 불구하고 2007년중 사상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승인(179억 달러)으로 인한 시설재

수입 급증, 2009년 가동을 앞두고 있는 베트남 최초 정유공장의 운영을 위한 원유 비축 및 이에 따른 원유 수출 축소, 식품류 가격 안정을 위한 쌀 수출 자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해당 요인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여 적자폭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.

□ 경제 위기이나 급격한 악화는 없을 듯

- 현재의 베트남 경제상황이 물가 급등, 주가 폭락, 부동산 버블 심화, 상품수지 적자 확대 등 경제위기 상황인 것은 분명하나, 현 상황이 외환위기 등 심각한 경제 불안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.
- 왜냐하면 베트남은 개방경제 체제의 초기 단계를 막 벗어난 상태로 아직 외환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간부문에서의 대외 채무가 많지 않으며, 국가 전체적으로도 2007년말 기준 대외채무 비중이 GDP 대비 31%에 그치고 있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고, 외채원리금상환비율(DSR)¹⁾도 1.6%에 불과해 대부분의 외채가 중장기 공적채무임을 나타내고 있음.
- 또한 베트남 정부가 2008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당초 9%대에서 7%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안정을 도모하고 있고, 무엇보다도 베트남 경제 규모 및 체제가 아직은 베트남 정부의 통제를 벗어날 만큼 크지도 않고 자유화되어 있지도 않아 베트남 정부의 경기 안정 정책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국영상업은행에서 대출받은 국영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현재 경제위기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, 최근의 경제 불안으로 이들 국영기업들의 투자가 부실화되어 국영은행의 부실로 연결될 경우에는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이 오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.

선임조사역 손승호(☎ 02-3779-6672)
E-mail : aojai@koreaexim.go.kr

1) Debt Service Ratio : 외채원리금상환액/총수출*100